

5·18



39주년

못 밝힌 ‘진실’... 못 끊은 ‘왜곡’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1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 민주열사들을 추모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진상규명조사위 정쟁 휘말리고 극우 단체 폄훼 기승 ‘광주 정신’으로 분열·갈등 넘어 국민통합 힘 모아야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39년이 됐다. 한국 민주주의를 이끌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폭력에 의한 감춰진 진실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39년의 세월이 흐른 올해도 각종 문서와 증언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정치권이 약속했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은 ‘정쟁’에 휘말려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 6면〉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5·18 진상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일부 정치권과 극우 성향 인사 및 단체들의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 시도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도(度)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자유연대 등 몇몇 보수 표방 단체가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광주를 방문하기로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5·18 역사 왜곡으로 예민해진 광주 시민들을 비롯해 5·18 기념식 전야제와 기념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타지역 추모객들과 황 대표 일행 및 일부 보수 단체 회원들 간의 충돌 등이 우려되서다.

황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국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 정치권과 5월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 때문이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으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5·18 망원 의원들의 정계와 5·18 왜곡 처벌법 제정 등 5·18 관련 3대 현안도 자유한국당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인해 국회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굳이 황 대표가 기념식에 참석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게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례가 없었던 일부 보수 단체 회원들의 금남로 집회 예고는 시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이는 자극적인 집회를 통해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광주의 모습을 부각함으로써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보수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80년 5월, 잔인하고 처참한 국가 폭력 속에서 나눔과 연대를 통해 ‘대중 세상’을 만들어 낸 광주 시민들은

올해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0년 이후 서슬퍼런 군부독재 아래서도 다른 지역과 연대해 국가폭력을 폭로하고 감춰진 진실을 밝히면서 한국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광주 정신’을 또 한 번 보여 줄 때가 된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30여 년의 노력 끝에 이뤄낸 ‘5·18의 전국화·세계화’가 일부 보수 정치인들과 보수 단체의 정치적 의도에 이용되서는 안 된다”면서 “현명하고 냉철하게 행동하면서, 국민통합을 통해 진상규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황 대표는 5·18 왜곡·폄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에 대한 협조 약속은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광주 시민들은 충돌 대신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발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5·18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이성적 판단과 절제된 언행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간절히 기대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면서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국민통합으로, 배타성을 뛰어넘어 상대를 안아내는 포용성으로, 울분과 분노를 뛰어넘어 승리와 희망의 역사로 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5·18 39주년 ... 오늘 전야제·내일 기념식

광주에 비가 내린다

〈비〉

5·18 광장서 전야제 ... 기념식 여야 정치인 등 대거 참석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늘 광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다. 올해 주제는 내년 40주년을 앞두고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을 전 국민이 함께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가치 계승을 통한 ‘통합’의 메시지를 담았다.

이번 기념식에는 5·18유공자와 유족, 일반시민, 여·야 정치인 등 5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달빛동맹’을 맺은 대구시에서도 권영진 대구시장, 우동기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등 대표단 30여 명이 광주를 방문한다.

기념식은 오프닝공연, 국민의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공연, 기념사, ‘대지의 노래’ 합창,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50분간 진행된다.

5·18의 역사적 현장인 구 전남도청에서 열리는 오프닝 공연은 5·18 당시 숨진 한 고등학생의 일기를 바탕으로 작곡된

노래 ‘마지막 일기’로 꾸며지며, 밴드 블랙홀과 대학연합합창단의 현악 7중주로 펼쳐진다. 기념공연은 5·18 당시 도청 앞에서 가두방송을 진행했던 박영순씨와 1980년 5월 27일 진압작전때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고교 1학년 안종필군의 어머니 이정남씨 이야기를 담았다. 민중가요 노래패 ‘노찾사’의 ‘그날이 오면’ 등이 함께 공연된다. 애국가 제창은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대표, 5·18 희생자 유족들이 선도한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는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생중계한다.

한편, 17일 오후부터 내린 비가 18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 관련 행사의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7일 전야제와 18일 정부 기념식 및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시간대에

모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7일 오후 6시께 전남 남서해안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18일 오전 광주와 전남 전역으로 확대되고 밤까지 계속 내릴 것”이라고 16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에 18일 밤까지 내리는 비의 강수량은 20~60mm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5~17도, 낮 최고기온은 20~23도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해상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돌풍이 불어 바다의 물결이 0.5~2.5m로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17일 낮부터 최고기온이 2~3도 가량 낮아지고 해안을 중심으로 17일 오후부터 18일 밤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다”며 “비가 그친 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 다시 기온이 올라 더위가 이어지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法, 이재명 경기지사 “모두 무죄”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등 1심 이지사 “도정으로 보답하겠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이가 이고했다.

〈관련기사 2면〉

재판부는 1시간 가량 이어진 이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고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창’, ‘대장동 개발업적 과정’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 지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

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지지자들에게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이 이 지사의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기태 KIA 감독 사퇴

“팬 여러분께 송구” ... 박흥식 대행체제로

KIA 타이거즈 김기태(50) 감독이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김 감독은 1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 경기에서 좌측 친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 15일 KT와 경기에서 4-7 패를 기록한 뒤 사임하겠다는 뜻을 구단에 전했다. 구단은 속고 끝에 16일 사의를 수용했다. KIA는 올 시즌 주축 선수들의 부진과 부상 탓에 10구단 체제 후 처음으로 최하위인 10위까지 추락하는 등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관련 기사 20면〉

지난 2014년 10월 고향팀 사령탑에 부

임했던 김 감독은 2017년 KBO리그 정규리그 및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과 3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이라는 기록을 뒤로하고 아인으로 돌아간다. 김 감독은 “팀을 위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면서 “팬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고, 그동안 응원해주시고 사랑 해주셨던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KIA는 박흥식 퓨처스 감독을 감독 대행으로 임명했다. 박 감독 대행은 17일 대전 한화전에서 KIA를 이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바른미래 내용 ... 손학규 “되진 않다” ▶4면



신 팔도유람 - 대전 힐링축제 ▶18면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